

### 3 장, 예수의 부모는 소설적 합성물

#### A. 주제(Thesis).

- 예수의 부모이야기는 예수전승 후기에 첨가된 것으로, 마리아에 대한 스캔들을 덮고 미화하기 위해 쓰였다.

#### B. 문제점(Problems).

- 예수부모에 관한 역사적 자료가 빈약하거나 전무하다. 서기 80 년 이전 어떤 문서에도 예수의 부모에 관한 기록이 없었고, 90 년까지는 예수의 부모 중 아무도 중요한 인물로 간주되지 않았다 (64-65). 바울서신(50-64 년)과 Q 복음서(50 년대?), 도마복음서에는 예수의 부모에 관한 언급이 없다.
- 마가복음은 첫번째 복음서. 여기에는 예수의 출생에 관한 기록이 없다.

#### C. 논점(Argumentation).

- 예수 부모에 관한 전승은 점차 발전되었다.
  - 마가복음: 예수의 가족(어머니, 네 형제와 두 자매, 3:31-35);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(6:1-4)=>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.
  - 마태복음: 예수의 아버지 요셉을 처음으로 언급 (마태의 창작). 구약의 요셉과 공통점: ①야곱의 아들(창 35:24, 마 1:16); ②꿈 ③이집트로 도피. 요셉은 야곱의 둘째 아내 라헬의 아들=>요셉의 아들들(므낏세, 에브라임=> 북 이스라엘의 대표)=> 야곱의 12 아들 중 유다가 아닌 요셉을 언급함으로써 남북통일(?)의 꿈
  - 누가복음: 아론과 모세이야기로부터. 아론의 아내, 엘리셰바(Elisheba, 출 6:23) אֱלִישֶׁבַע => אֱלִישֶׁבַע LXX Ελισάβεθ (NT Ἐλισάβετ =>HNT אֱלִישֶׁבַע); 미리암//마리아
- 동정녀 << 이사야 7:14 (עַלְמָה young woman=> παρθένος virgin, unmarried woman/man). 마리아에 대한 나쁜 소문을 덮으려고 도입 (72, cf. 눅 1:48; 요 8:41).
- 마리아 전승은, 처음에는 당혹스러운 스캔들로부터, 동정녀와 성령에 의한 잉태로, 나중에는 몸으로 그대로 승천한 이야기로 발전(성모승천설, Assumption of Mary, 1950 by Pope Pius XII)로 발전.

#### D. 평가(Critique).

- 스폰은 마 1:18 의 “성령으로” 잉태된 것이 필사자의 첨가물로 보고 있으나(70), 증거 불충분. 스폰의 주장처럼 마태복음 저자가 마리아에 대한 스캔들을 잠재울 필요에 의해 이 글을 썼다면, 처음부터 “성령으로”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.
- “도대체 예수의 삶에서 어떤 비범한 일들이 있었기에 그런 신화적인 용어들로 밖에는 그의 삶을 달리 표현할 수 없었는지...” (p. 80). 다시 보는 “해석학적 삼각형”: 의도(가치), 사건(경험), 기록(표현)과의 관계.

-----  
생각해 보기

1. 성탄절 촛극(혹은 설교)에서, 예수의 탄생이야기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한 성서로만 읽은 적이 있는가? 다른 점은?
2. 예수의 부모전승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, (내게) 무엇이 문제가 될까?